



외국 농산촌의 창조적 재생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전 일본 우쓰노미야 국립대학교 Assistant Professor
한국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강사
김 준호

2009.12.8

도시농촌교류에 의한 지역재생

福島県 金山町

- 총면적 293.97km², 90% 산악 지대, 대설지대, 묵은 눈기간 4개월, 1.5m 적설.
- 인구 약 2600명, 1,140세대, 고령화율 54%, 대소 30취락,
- 2차, 3차산업이 주, 농가 1호당 경지면적 40.4a 주로 소규모인 경업
- 농산물: 아자키무, 키위 프루츠, 허브, 태엽, 고사리의 산나물 재배, 맛버섯등의 버섯 재배



자연교육 마을사업의 전체적 흐름





자연교육 마을사업의 활동 거점

- ◇민박과 자연교육촌 회관: 숙박과 체험 학습,
- ◇마을시설인 활성화 센터, 농업실습관, 생활 체험관: 농촌체험 학습
- ◇읍민체육관, 읍영야구장, 테니스 코트, 읍영 스키장, 스노모빌란도 거점으로 이용

자연교육총회관

- ◆ 폐교 목조교사 : 일본문교부의 자연교실수용 시설 「집단숙박 교육 공동 이용 시설」 사업의 보조금을 받아 재생,
- ◆ 자연교육촌 회관 (1986년)
: 자연교육 마을사업의 숙박과 체험 학습 시설로 이용.



자연교육촌 회관 개요

- 목조2층건물
- 숙박수용인원 다다미방 4실/105명 수용
- 식당/60명 수용
- 교재실/3실:생활민구 자료 전시
- 그 외/학습실1실,담화실1실

활성화 센터 「고부시 관」

- ◇1992년 4월에 조문(縄文)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귀중한 자료가 전시된 향토학습의 장소
- ◇메밀분100%로 손으로 만든 「高遠 메밀국수」에 특산물 「아사기 무」를 양념하여 제공
- ◇인접하고 있는 「구 이가시마(五十島)가 주택」과 「고부시관」에서 관광과 농업 등의 자연체험, 향토역사학습의 역할



○농업실습관

산장풍의 건물로, 농업체험 연수에 이용.
근처에 체험 농장이 있음



○생활 체험관

짚 세공, 양초만들기, 목공품,
손으로 만든 메밀국수등의
체험





自然教育村 体験メニュー

물건 만들기 체험	사사마키(笹巻)만들기 / 곤약만들기 / 된장만들기 두부만들기 / 메밀국수 만들기 / 죽세공(물총) 목공세공/ 짚 세공만들기 미니 짚 세공(수수미 만들기, 남비 받침만들기) 오동나무세공/ 일본초만들기
근로 체험	농작업체험/ 버베기/ 밤줍기 고구마 파기/ 꿀벌 관찰/ 산채 따기 버섯 균 붙이기/ 숯불 구이
자연 체험	다다미연선의 관찰/ 강물놀이 계류낚시 / 등산·산책 버드워칭/ 걷는 스키



운영 체제

- ◇ 사업시작 당시: 읍사무소 산업과+관광협회
학교관계, 일반손님의 접수창구
민박조합, 진흥공사, 沼沢湖山莊이 받음
- ◇ 진흥공사 철폐(2001년),
민간단체 「아소비의 학교」 운영
:자연교육촌 회관등의 시설 이용
민박과 다른 체험 프로그램

자연교육촌 체험 스케줄 예

[illegible][illegible]

민박

内容	料金(円)
宿泊料 1泊2식사	6100
昼食代	600
体験費	1000
追加体験費	700
캠프파이어 비용	25000
合宿料金 3泊8식사	18700
2泊5식사	14700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学校数	16	10	5	4
인원	2600	1841	660	650

자연교육촌 회관

	인원
1995년	597
96년	1,075
97년	635
98년	619
99년	578
2000년	480
2001년	641
2002년	182

※2002년도부터 아소비의 학교





인스트럭터(instructor)

- ◇초중학생에게 체험 학습을 시킴, 주로 민박 경영자
- ◇강사로서 읍민의 지식인들이 등록
- ◇마을의 역사·문화, 버섯이나 산채의 먹는 방법, 짚 세공, 낫또(메주), 향토요리, 두부의 만드는 방법등을 가르치거나,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 ◇1997년에 조직된 「아소비의 학교」가 인스트럭터를 파견한 적도 있다.
- ◇마을에서는 낚시나 버섯 뽑는 명인을 모아 인재 बैं크를 만들고, 민박 조합이 유상으로 인재 बैं크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그다지 수요가 없고, 민박 경영자가 인스트럭터가 되고나서, 현재도 인재 बैं크는 있지만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

체험자 받기 시스템

◇학교관계자 → 읍사무소, 관광 협회에 문의

◆분숙 → 민박 조합, 합숙 → 아소비의 학교 / 沼沢湖山莊

◆학교관계자와 직접 상담

◇민박 조합:민박 조합원 전원이 모여, 각 민박의 체험 메뉴와
숙박가능 인원등 상황을 토대로, 수용 민박을 정함.
민박 한집당 약 20명까지

◇숙박: 2박3일/ 3박4일, 계절에 의해 숙박 프로그램이 다름.

◇민박에는 주로 관동(關東) 권을 중심으로 학교 학생
특히, 중학생의 체험 학습 장소로 방문.

◇요금 : 숙박료, 체험료등

학교 : 교육위원회등에서 교통비등을 보조 받아 참가



실태 와 과제

■ 실태

- ◇ 숙박체험자 감소
- ◇ 마을관리의 농업실습관이나 생활 체험관의 이용 3,4년전 부터 대부분 없음
- ◇ 민박: 25채에서 10채로 조합원자체가 감소

■원인

<민박>

- ①낮은 농가의 개축에 따른 농가의 분위기 감소
- ②각 민박의 서비스에 차이
- ③농가민박의 농업종사율 감소 / 인스트럭터 감소
- ④민박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등산길등의 관리미비
- ⑤손님 유치의 행정주도
 - 민박의 경영적인 경쟁 원리가 작용 하지 않음
 - 서비스의 질의 향상,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안 등의 부재

<학교>

- ①교육위원회등으로부터 보조금 동결
- ②담당선생님의 책임부담(선생님1명에 학생20명)
- ③민박에 분속 → 체험 학습등으로 1개의 장소에 집합
:거리,시간, 안전상의 문제
- ④학교의 종합적인 학습 실시 → 학교부근에서 자연체험



■ 자연교육 마을사업 재구축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

- ◇본업인 농업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경영을 하는 것이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을 추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 ◇민간단체와 행정과의 연계
- ◇촌락을 기본으로 한 지역내의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를 살린 農泊의 검토
- ◇광역적인 시점에서 본 도시농촌교류

중산간 지역의 그린투어리즘

- 오이타현 우사시 아지무(安心院) 지구 -



安心院地区 概要



- 総面積147.17km² 中山間農業地域
- 人口:7627명、2826세대 (2005年現在)
- 産業:比較的農地 조건이 좋아、쌀·포도를 中心으로 畜産·野菜·꽃 등의 複合經營
- 産業別就業人口比:
: 第一次33.4%、第二次26.4%、
第3次40.2% (2003年現在)。
- 兼業化 나 후계자의 減少에 따른 農業의 弱体化
- 2005年宇佐市、院内町、安心院町가 合併、宇佐市安心院地区。

宿泊施設

: 호텔 (1)、旅館 (3)、
民宿 (2)、公共宿舎 (1)、
公営温泉 (3)、

[illegible]

NPO法人 安心院그린 투어리즘

연구회

■구성원 : 約450名 (旧町内約180名 旧町外約270名 (応援団))
農泊을 經營하는 世帯가 中心

■専門部 : 企画部、 広報部、 **農泊部**、 아그리부部、 環境美化部、 応援団部

■주요 活動 : ①**會員制農村民泊、農業体験의 実施**、
②고향탐방女性の 여행、리버워크 実施
③全国 べっ짚 쌓기 대회 実施 등

■「그린 투어리즘實踐大学」實施

2005년부터 **農泊의 經營자育成을 目的으로** 開校。

農泊實習 이나 各分野의 講座등을 통하여、 農業,農泊의 노하우를 배움。
将来에는 安心院地区에 移住者를 増加시키는 方向。



全国 べっ짚 쌓기 대회(全国藁こずみ大会)



그린 투어리즘 實踐大学



◇홍보부

- 연구회회보 「마음의 세탁」 발행(년 수회)
- 년간 활동 보고서 「마음의 세탁」 작성
- 인터넷에 의한 정보발신
- 홍보부의 정례 회의 실시

◇기획 개발부

- 전국 벚짚 쌓기 대회 and 피날레축제의 개최
- 고향 탐방의 개최
- 독일어강좌의 실시
- 마을 내 가이드 연수의 실시

◇아구리부

- 아지무 농업체험 「마이 마이 이야기」 계획·실시 (년간을 통한 체험)
- GW 농촌체험 「단골 농가를 만들자」 계획·실시

◇환경미화부

- 일본 제일 예쁜 마을 건설 운동 추진
- 리버사이드 워크의 계획 실시

◇農泊부

- 농촌민박의 접수창구
- 전승 요리 연수 나 지산지소의 가공 요리 연구
- 현(縣), 국내외에의 農泊의 현지연수
- 수학 여행 체험 학생 받기 농가의 동료만들기
- 식품 위생·요리 등의 연수

◇응원단부

- 정례회, 이벤트, 유럽 연수 등에 무리없이 참가해 즐긴다
- 정례회자료, 회보 「마음의 세탁」 등의 배포 및 정보발신에 노력한다
- 응원단의 동료만들기 및 연계를 밀접하게 한다
- 마을 내 응원단과 국내응원단이 있어, 마을 내 응원단장은 오이타은행 아지무 지점장이 맡는다

※적립 유럽 연수 사무국

- 매달 4, 000엔을 5년단위로 모아, GT본고장 유럽 연수를 간다

■아지무 지구의 그린 투어리즘 이념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이란,

- ① 지역에 사는 한사람 한사람이 농촌에서의 일상 생활을 즐겁게 보내는 속에서, 밖에서 온 손님들 따뜻하게 맞아 들일 수 있는 《풍요로움에 빛나는 농촌》을 목표로 한, 새로운 농촌경영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 ② 도시(소비자)과 농촌(생산자)이 서로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이, 마음으로 통한 대등한 교류를 통해, 「知緣(정보로 맺어진 친척)관계」가 되어, 공생의 길을 찾는 것이다.
- ③ 경관에서 산업까지 일체적인 대응을 직업 및 세대의 울타리를 넘은 연계를 도모하는 속에서 추진하는 것에 의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마을전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일상 생활을 통한 마을의 연대 의식 고조)
- ④ 폐쇄된 농촌사회의 과거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농촌부녀자의 지위와 의식의 향상 및 자립을 도모**하고, 남녀공동으로 성립되는 「마을만들기」와 매력적인 가족관계를 만드는 운동이다.
- ⑤그린투어리즘이 뿌리내린 농촌에는, 풍부한 자연 환경이 중요하게 지켜지고 있고,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신에 가득 찬 미소가 있다. 그것을 추구하고, 마음의 세탁(정화)을 위해서 방문하는 여행자에 의해 마을의 품위는 높아지고, 경제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⑥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의 보급에 의해 마을이 활성화 되고,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밝은 꿈을 주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農村民泊

농촌의 생활이나 문화를 체험하는 목적으로
주로 농업을 영위하는 일반 농가에 숙박·체재
하는 것

회원제로 숙박비를 체험료 지불
농박을 받아 들이는 농가: 농박농가(16농가)



農村民泊 추진

GT研究회는 発足時 부터 農泊을 実施하여왔고、現在、農泊部가 中心이 되어 推進

■農村民泊 지침: 農業經營이나 家族生活에 支障이 없고、持續的이고 自律的으로 추진할수 있어야 한다。

農村民泊지침

1. 비어 있는 방을 이용한다. (돈을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
2. 기본적으로 저녁 식사는 내지 않지만, 희망에 의해 제공 하는 경우는 평상시의 저녁 식사로 한다.
3. 하루1조, 그 이상은 묵게 하지 않는다.
4. 바쁠 때는 거절한다.
5. 농업·농촌 문화 체험의 일환으로 농박을 추천한다
6. 농박체험료는,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정도의 요금.
7. 어른 1인 200엔, 어린이 1인 100엔을 환경 미화 운동등,연구회 의 운영 자금에 환원한다.
8. “한 번 묵으면 먼 친척” 멤버스카드를 건네주어, 농박회원 으로 한다(무료).
9. 민박(숙소) 보험에 가입한다.
10. 민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원칙으로 경영자 책임으로 대응한다

■ 家族構成

農泊經營担当: 60歳~70歳台(11세대)

高齢者夫婦世帯: 6가구、2世代家族: 6가구、3世代家族: 3가구

T 邸

家族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7:00	8:00	9:00	10:00	11:00
世帯主의 父 (79)	마중		저녁식사		交流		목욕		아침식사		전송	
世帯主의 母 (74)	마중	準備	저녁식사	정리/설거지		交流	목욕	準備	아침식사	片付	전송	
世帯主 (53)			저녁식사		交流		목욕	아침식사			출근	
世帯主의 妻 (49)		準備	저녁식사	정리/설거지		交流	목욕	準備	아침식사	片付	출근	
長男 (25)			저녁식사					아침식사				
長女 (21)			저녁식사					아침식사			출근	
次女 (18)			저녁식사					아침식사			출근	

M 邸

家族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7:00	8:00	9:00	10:00	11:00
世帯主의 母	마중	準備	저녁식사	정리/설거지		交流	목욕	準備	아침식사	정리	청소	세탁
世帯主			저녁식사		交流		목욕	아침식사			출근	
世帯主의 妻	마중	準備	저녁식사	정리/설거지		交流	목욕	準備	아침식사	정리	청소	세탁

Y 邸

家族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7:00	8:00	9:00	10:00	11:00
世帯主 (72)	마중	交流	저녁식사		交流		정리, 목욕	아침식사			전송	
世帯主의 妻 (68)	마중	準備	저녁식사		交流		정리, 목욕	準備	아침식사	정리	청소	전송

農村民泊 추진

■農泊体験料: 어른 1 名(中学校以上)4,500円、어린이 3,000円, 저녁식사 1 名 1,500원, 점심식사 500원

■体験可能な 메뉴: 음식만들기, 공예, 自然体験 등 農家別로 立地·經營條件을 活用하여 각자 독특한 체험을 준비。
체험료 1,000원(재료 500원)



T농가



- 1.부엌
- 2.거실
- 3.타나모토
- 4.히로마
- 5.난도
- 6.나가노마
- 7.오쿠자시키
- 8.자시키
- 9.빵 공방
- 10.별채(참고)



立体分離・別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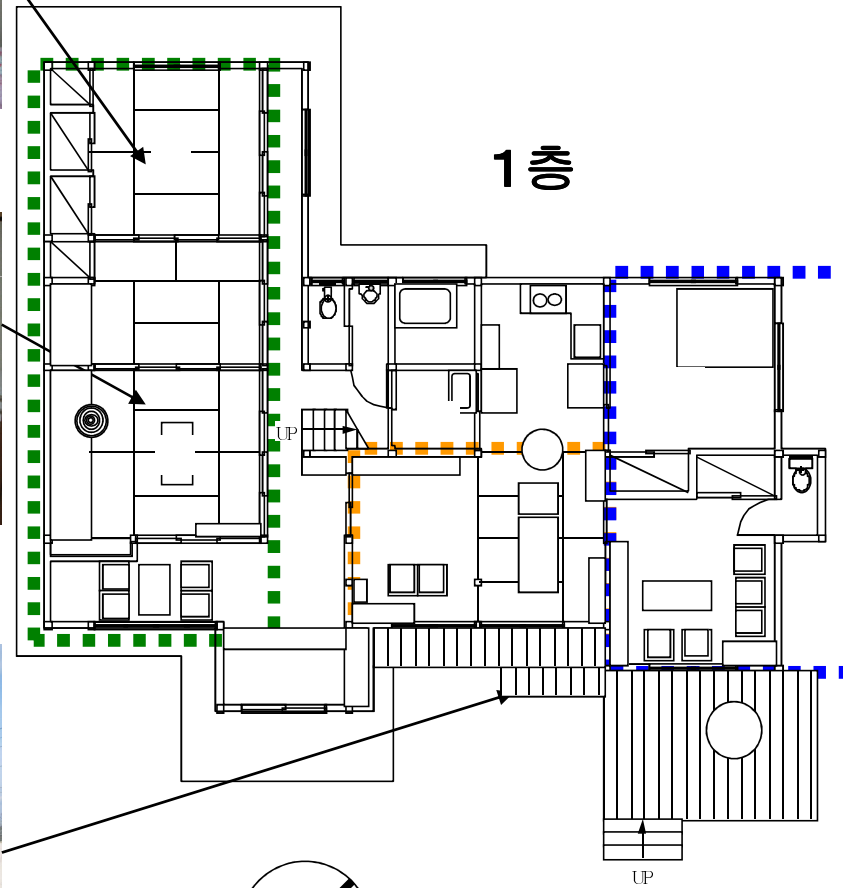


- 가족이 사용하는 부분
- 공용 부분
- 숙박객이 사용하는 부분



T2 농가

平面分離



1m 3m 5m

*아지무마을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마음의 세탁:心のせんたく」 2006년3월



원인

■ 수학여행 등의
체험학습생의 증가

■ **宿泊状況**: 2004년 약 4,300명, 2000년부터 修学旅行의 需要가 急速히 늘어、2006년에는 32교 3,313명의 学生이 農泊을 体験。
(2008년: 학생 4000여명, 일반인 1000명, 한국인 100여명)

많은 숙박자에 대한 対応은、現在營業許可를 취득하고 있는 우사시에 農泊農家 33세대와, 그외 約50세대의 農家が 予備軍으로 農泊을 하고있다。予備軍 中에는、이런 經驗을 계기로 農泊에 대해 積極적인 자세를 보이는 農家도 있다。

■ N P O 法人 安心院 그린 투어리즘 연구회 구체적 추진 방침

- ①그린 투어리즘 연구회의 사무국기능 강화, **그린 투어리즘을 산업로서 확립**
- ②**그린 투어리즘의 질의 향상과 후계자 양성**에 힘쓴다.
- ③국내응원단 **3~4년**이내 **600명** 정도 증원
- ④**와인의 규제 완화**
- ⑤수학 여행의 대응 위한 農泊부 응원단의 만들기, **간이숙소의 인가 수속 촉진.**
- ⑥규슈(九州) 그린 투어리즘 심포지엄 개최 / 규슈 그린 투어리즘 연구회의 설립 상정. 「그린 투어리즘은 규슈(九州)에」
- ⑦우사시가 되어 바다와 산이 일체가 되었다. 교류나 친목을 깊게 해 서로 기쁨을 함께하는 동료가 되자.
- ⑧현의 지역 내 **18시읍면**에 결성되어 있는 오이타(大分) 그린 투어리즘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친목과 그린 투어리즘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하자.
- ⑨**바캉스법 (장기휴가법)**
- ⑩아지무의 매력인 **슬로우 푸드를 중요하게 계승**해 가자.

취락 그린 투어리즘

宇佐市安心院町 松本集落

우사시 아지무마을 마쓰모토 취락

■位置 아지무 지구 중앙

■標高 1 6 0 m

■地形 南北으로 긴 지형

愛称: 이모리 다니

(영원(도롱뇽) 골짜기)

■文化財

県指定重要文化財 「南光寺の仁王像」

■세대수: 5 6 세대
(1턴 9 세대)

■認定農業者 6 명

■水田面積 3 5 . 7 ha

畑面積 1 4 . 5 ha

■主要作物

대두 · 포도 · 쌀 · 야채



자치회의 활동



마쓰모토 영농 조합

◇취락영농

대두의 집단전작

(2000년)

→ 교부금/보조금으로
마을만들기의 거점인
취락 영농센터 건설
※ 영농조합을 설립



■아지무 이모리 타니 클럽(苦樂)

◇2001년 9월에 취락유지를 중심으로 발족,
현재 10가구 20명의 회원에게서 구성

会長/事務局/運営部 / 販売部 / 情報発信部 /
企画部 / 環境整備部 / 会計 8명

◇주된 활동

취락의 HP를 제작, 이벤트, 관광 PR, 도시교류
취락입구에 취락 심볼 마크 건설,
심볼 스티커의 제작(도룡용 형태).

◇모리(森) 모리(守) 클럽

클럽멤버를 중심으로 9명,
표고버섯 재배의 부진으로 황폐해진 잡목림
(약30ha)을 정비. 표고버섯 수확 체험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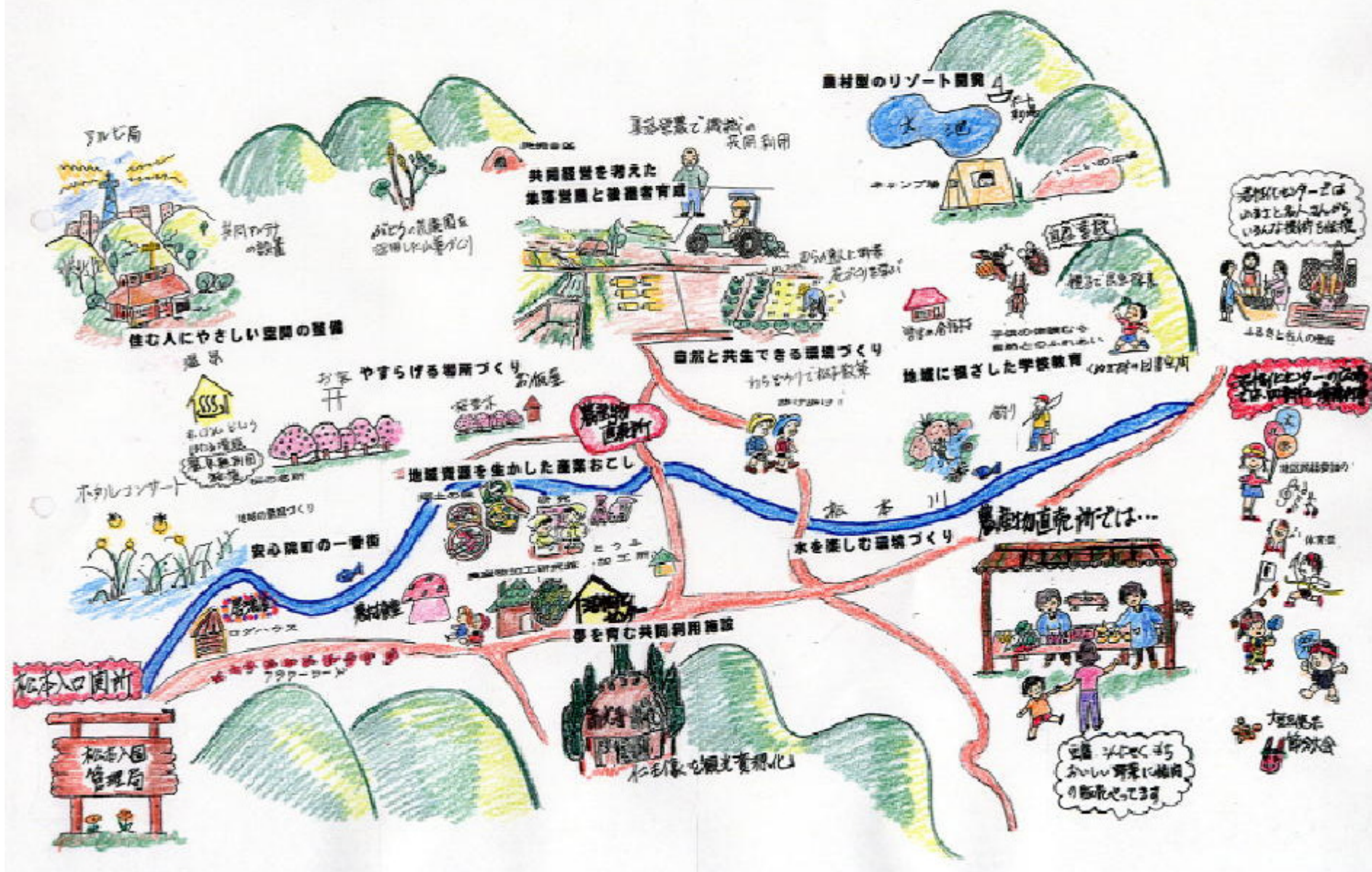


취락 비전 만들기(워크숍 개최)

마쓰모토 취락의 주요 비전

- 젊은세대가 살고 싶어지는 매력있는 마을만들기
- 공동영농을 생각한 취락영농과 후계자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일으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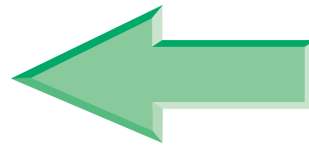
快適・やすらぎの里「いきいき松本」構想マップ こんな松本だったらいい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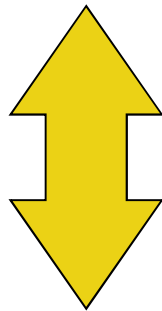


취락 그린투어리즘 추진체제

松本集落
(自治組合)



松本
営農組合



安心院松本이모리다니苦樂分

새로운 마을만들기 활동

안테나숍 개점

생산활동

+

교류활동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



직매장



지역생산물



실체험

어머니들의 작은 공방



◆ 차기부담 가공장

◆ 여성의 자립

농업과 상업의 연계

순미주(純米酒)생산/ 판매



와인 「イモリ谷(이모리다니)」 생산/판매



2008년도
국산 와인 대회
金賞 수상



도시 농촌 교류 이벤트

- 2 月 표고버섯 종균넣기 · 숯굽기체험
- 4 月 연화꽃 축제
- 6 月 반딧불 콘서트 · 술만들기 모시기
- 8 月 여름 밤의 영화제
- 9 月 효탄(조롱박)저수지 물배기 · 와인축제
- 1 0 月 술만들기 베품기
- 1 1 月 가을 축제
- 1 2 月 금줄 · 리스 만들기
새해 맞이 이벤트

수학여행학생 농가민박



食農教育



津房초등학생이
관리해온 대두밭



別府市 고등학생의
사회체험
(초등학생과 합동작업)

렌트 소 사업



벚꽃 식목 (2005·3)



이모리다니

무엇이든 알림판



취락 홈페이지 개설



2004년 농림수산물 마을만들기 부문

천황배 수상





마을만들기 특징



- 「이모리다니」 모두 다
- 장래비전으로 방향성
- 핀치를 찬스로
- 商과 農의 連携에 의한 새로운 産業의 創出
- 사람들과 交流에 의한 새로운 문화의 창조
- 이모리다니의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



이모리다니의 향후 계획

- ◇ 영농조합의 법인화
- ◇ 농민집단[이모리조] 결성
- ◇ 농상연계 강화
- ◇ 이모리다니 대사관 설치
- ◇ 농촌 레스토랑 개설(먼저, 도시락조합 운영)
및 농촌민박개시
- ◇ 정보발신/수신기지의 설치
- ◇ 농촌숙, 자연숙의 개교
- ◇ 전통문화의 계승
- ◇ 이모리 苦樂分(클럽)의 NPO화
- ◇ 취락내의 공생과 근린취락과의 연계
- ◇ 깨끗한 마을 만들기/마을산 정비
- ◇ 취락 비전 책정(제3탄)

◇ 자원:반딧불

+

예술적 요소:음악 / 문화적요소:영화



반딧불 (생물), 강(자연), 신사시설(공간)
환경자산으로서 활용/재평가

◇ 이벤트의 지속적 활동



반딧불/강/ 신사시설이 환경자산으로서
보전, 유지 해 가는 활동으로 연결



환경 자산의 평가와 활용

교류(그린 투어리즘)



지역환경·공간(자원) 재평가 (도시·농촌)

↓(의식개혁)

가치 부가(문화적 가치 ; 이야기 만들기)



지역환경·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적 가치(활동) 창출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보전, 유지)



「시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있다」

「기분 하나(의식 개혁)로 시골도 즐겁다!」

「발을 잡아 당기지 말고, 손을 잡아 당기자」

「의식 개혁」 → 교류

「숙박자의 감동의 눈물 → 마을사람의 감동」

世界に一つだけの花 - Smap -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

花屋の店先に並んだ いろんな花を見ていた
꽃가게 앞에 놓여진 여러가지 꽃을 보고 있었어요
ひとそれぞれ好みはあるけどどれもみんなきれいだね
사람마다 각각 좋아하는 꽃은 있지만, 모두다 예쁘네요

この中で誰が一番だなんて 争うこともしないで
이 속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다투지도 않고
バケツの中誇らしげに しゃんと胸を張っている
바구니 속에서 자랑스러운듯이 꽃꽂이 가슴을 펴고 있어요

それなのに僕ら人間は どうしてこうも比べたがる?
그런데 우리들 인간은 왜 이렇게나 비교하고 싶어하나요?
一人一人違うのにその中で 一番になりたがる?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데도, 그 속에서 일 등이 되고 싶어하나요?

そうさ 僕らは 世界に一つだけの花
그래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뿐인 꽃이에요
一人一人違う種を持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씨앗을 가져요
その花をさかせることだけに
그 꽃을 피우는 일에만
一生懸命になればいい
전념하게 되면 되요

困ったように笑いながら ずっと迷ってる人がいる
곤란한 듯이 웃으면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頑張っさいた花はどれもきれいだから仕方ないね
힘들여 핀 꽃은 모두다 예쁘기에 어쩔 수 없죠

やっと店から出てきた その人が抱えていた
겨우 가게에서 나온 그 사람이 품에 안고 있는
色とりどりの花束と うれしそうな横顔
가지 각색의 꽃다발과 기쁜 듯한 옆 얼굴

名前も知らなかったけれど あの日僕に笑顔をくれた
이름도 몰랐지만 그 날 나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誰も気づかないような場所で さいた花のように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피는 꽃처럼...

そうさ 僕らも 世界に一つだけの花
그래요, 우리들도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에요
一人一人違う種を持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씨앗을 가져요
その花をさかせることだけに
그 꽃을 피우는 일에만
一生懸命になればいい
전념하게 되면 되요

小さい花や大きな花 一つとして同じものはないから
작은 꽃과 큰 꽃, 무엇하나 같은 건 없으니
NO.1にならなくてもいい もともと特別なOnly one
NO.1이 되지 않아도 되요, 원래 특별한 Only one





사람의 마음을 살수 있는 감동 사업

커뮤니티만들기는
평생 해야 할 일.
지치지 않도록,
지나치게 열심히 하지
않도록